

신창동 여대생 피살 사건 '유전자 수사' 용의자 검거 1년3개월만에...용의자 혐의 부인

‘광주 신창동 여대생 성폭행 피살사건’ 용의자가 경찰의 끈질긴 ‘유전자 수사’로 1년3개월 만에 붙잡혔으나, 이 용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5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 광산경찰은 최근까지 형사 입건된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전자를 확보했다. 입건자들의 침을 면봉에 묻혀 구강상피(口腔上皮) 세포를 추출한 것.

경찰은 마침내 지난 9일 200여건의 유전자 중에 피해자의 가검물에서 채취해 둔 것과 동일한 유전자를 찾아냈다. 지난 달 말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26)씨의 것이었다. 경찰은 1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그러나 “그런 적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광산 여대생 피살 사건은=지난해 5월 19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J스포츠타운 인근 도랑에서 M(당시 20세·광주 D대학 2년)씨가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M씨는 성폭행당하고, 얼굴은 심하게 얻어맞은 모습이었다. 경찰은 사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유전자를 확보해왔다.

경찰은 M씨가 실종되기 직전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서 택시를 탔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택시기사 등 200여명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시내버스 환승거부 철회하라”

광주 8개 시민단체 성명

광주경실련(공동대표 김용재 등 2인)과 광주YMCA(이사장 김태봉) 등 광주지역 8개 시민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최근 무료 환승을 거부키로 한 것은 시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또 “무료환승 거부가 강행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시민들의 교통과 불편은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이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임금 등 협상을 위한 노·사·정 제 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사측이 17일까지 노조에 제시할 협상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조도 이 자리에서 임금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료환승 거부운동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2차 협상은 17일 오후 2시에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정신나간 경찰’ 퇴근길 차량진행 방해 했다면

60대 노인 수갑 채우고 폭행



지난 14일 경찰에 폭행당해 담양 모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손씨. 부상당한 오른쪽 팔을 내 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4일 담양을 천변리서 경찰봉으로 중상 입혀 말리던 주민까지 때려

30대 현직 경찰관이 퇴근길 자신의 승용차 진로를 막는다면 앞서 가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봉 등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이 경찰은 이를 말리며 항의하던 주민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그는 주민을 구타한 뒤 소속 경찰서 동료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담양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태영하이빌 C동 앞 공터에서 담양경찰서 교통지도계 김모(32) 순경이 손모(62·담양군 봉산면·농민)씨를 주먹과 발, 경찰봉으로 마구 폭행했다.

김 순경은 이 과정에서 수갑으로 손씨의 손을 뒤로 묶은 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이날 지병 때문에 약을 사기 위해 담양읍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으며,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담양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손씨는 “하도 많이 맞아서 이리다 죽겠구나 생각했다”며 “지금도 무서워 잠이 잘 오지 않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어민들 “맨손 어업 허가” 해상 시위

광양항 준설 공사 3시간 중단

광양지역 어민들이 16일 맨손어업 허가-어업 피해 조사 등을 요구하며 어선 시위를 벌여 항만 공사가 3시간 동안 중단됐다.

광양만권 어업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어민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광양시 고락동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3단계 앞 바다에서 어선 11척을 동원, 해상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3천만㎡에 달하는 바다 준설 공사를 하면서 어민들과 단 한차례 상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광양항 2항로 공사를 위한 준설선들의

가동을 3시간 가량 중지시켰다.

대책위 김영현 위원장은 “맨손 어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항소로 맞서고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수십년 동안 해 온 맨손어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어민들을 기만해 온 만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어선 시위를 강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 민경태 청장과 면담을 갖고 ▲맨손어업 합법화 ▲2항로 공사 즉각 중지 및 어업 피해 조사 실시 ▲광양

만 입구 등 특정해역 보상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광양, 여수, 하동, 남해 등 4개 시·군 어민 2천여명·320여대의 어선을 동원해 대규모 항만 봉쇄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4월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시가 맨손어업 신고필증 교부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가짜 명품’ 집중단속

경찰, 10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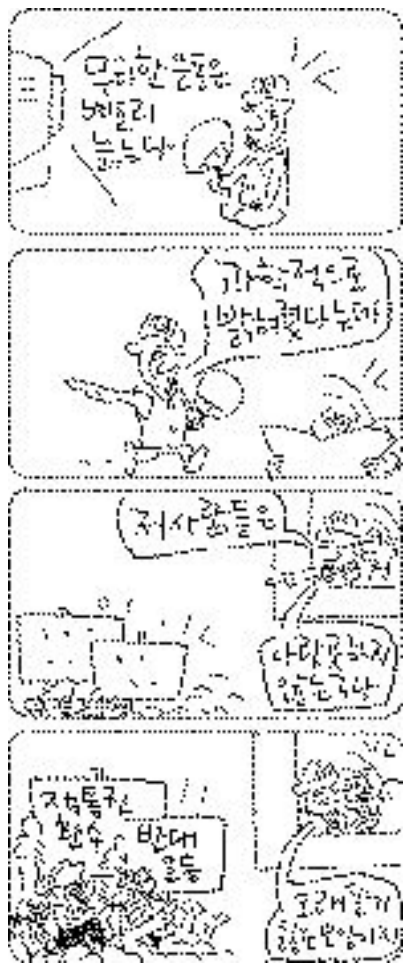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명품’에 대한 내사결과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오전 본청 외사과장, 지방범죄수사과장, 외사과법대책계장과 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외사과계장, 수사2계장 등 담당 간부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 명품 유통 및 외국상표 위조’에 대한 긴급 수사회의를 열고 수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찰은 이달 20일까지 지방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등에서 정보 수집과 내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본격 단속에 나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6909)



연세대학교
대주 피오레
1,300여 부피 중 353명 353부피
문의 (062)366-4220

다방업주 소녀가장 성매매 혐의

광주 광산경찰은 16일 소녀가장 박모(18)양의 여동생(17·11)들을 감금한 뒤, 박 양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H다방업주 조모(2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빌라 1조1천500억원에 낙찰 ‘해프닝’

○법원 경매에 나온 48평형 빌라주택 한 채가 낙찰자의 실수로 1조1천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낙찰됐다가 취소되는 해프닝.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매6개가 입찰한 울산 남구 W빌라의 낙찰자가 115,000,000(원)이라고 낙찰가를 써내려다, 실수로 115,000,000만(원)으로 기재했다는 것.

○법원은 낙찰자가 잘못 표기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 관계자는 “입찰자들이 평소 몇 만원, 몇 천만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입찰가 기재란 맨 끝에 ‘만’ 자를 쓴 것 같다”고 설명.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키블러 인안액
안과 전문의 처방
안과 전문의 처방
안과 전문의 처방

신도통 쿨염안약
안과 전문의 처방
안과 전문의 처방
안과 전문의 처방

타이머 점안액
안과 전문의 처방
안과 전문의 처방
안과 전문의 처방

고객을 위한 전화
062-022-2290 (주식회사) 24시간 상담

국제약품이 키블러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은 사람과 소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광고심의의뢰 : 878-0100